퇴고는 곱씹기다.

프롤로그 - 툭, 다시 읽는다는 것

처음 쓴 문장은 늘 조금 낯설다.

내가 쓴 건 맞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 서툴렀지 싶은 문장들이 줄줄이 눈에 밟힌다.

글을 쓸 땐 몰랐다.

속이 시원했거나, 뭔가 제대로 찌른 것 같았거나, 혹은 그 말만큼은 영원히 내 편일 거라 믿었을지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말을 다시 읽는 순간—

툭,

감정이 걸리고

툭,

어떤 문장은 스스로 의미를 거둬간다.

그게 퇴고의 시작이다.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감응하기 위함이다.

말을 곱씹는다.

생각보다 오래 씹는다.

처음엔 거칠었던 문장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어느 순간 처음보다 더 나답게 입안에 맴돈다.

퇴고는 기술이 아니다.

퇴고는 감응이다.

내가 내 말을 다시 살아내는 시간,

그게 퇴고다.

1장. 감정이 앞서기도, 뒤처지기도 한다

문장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다.

속이 먼저 달아올라 손이 멋대로 움직이고 마음은 나중에야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싶어 헛웃음부터 나온다. 혹은 반대일 때도 있다. 마음은 온통 뒤집혔는데 막상 손은 “뭐부터 쓰지?” 하며 망설인다. 감정이 앞설 수도 뒤처질 수도 있다.

그래서 퇴고는 그 시간차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처음 쓴 말은 내 마음 같지 않거나, 내 감정만 같거나. 둘 다 나인데 둘 다 내 말 같지 않다.

그래서 퇴고는 내가 쓴 말을 내가 다시 살아보는 과정이다. 마음과 문장이 같은 박자에 놓일 때까지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다시 느낀다.

그 때가 말이 내 편이 되는 순간이다.

2장. - 감정의 날을 간다

요리를 하려면 먼저 칼을 꺼내야 한다. 그 칼에 묻은 지난날의 감정을 닦고, 날이 무뎌졌다면 갈아야 한다.

그것이 퇴고의 시작 전, 준비의 퇴고다.

처음 쓴 문장은 정확히는 감정의 흔적이다. 말이 아니라 기세에 가까울 때도 많다. 무언가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조차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날을 간다.

말의 모양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말을 듣기 위한 내 귀의 감도를 세운다. 이건 기술보다 태도다. 고치는 게 아니라 잘 고치기 위한 준비.

나는 무엇을 요리하려 하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어떤 칼이 필요하고 어디부터 손질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내가 정말 이 요리를 하고 싶은가?

감정의 날을 간다는 건

말을 꺼내기 전, 내가 왜 이 말을 꺼내려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3장. - 되새김은 곱씹기다

처음 쓴 문장은 대개 생말이다. 덜 익었거나 너무 익어버렸거나 씹지도 않고 뱉은 말일 수도 있다.

퇴고는 그 말을 다시 입에 넣고 씹는 일이다. 삼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뱉은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떤 맛을 남기는지를 천천히 확인하는 일.

말을 곱씹다 보면 처음엔 몰랐던 결이 드러난다.

쓴맛, 단맛, 때론 이물감 같은 감정까지 조금씩 올라온다.

되새김은 다시 쓰기와 다르다. 다시 쓴다는 건 결과를 바꾸려는 것이지만, 되새긴다는 건 그 말을 다시 살아보려는 태도다.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말과 다시 만나는 일. 그리고 다시 내 일부가 되도록 받아들이는 일.

말이 말답게 울릴 때까지 나는 그 말을 곱씹는다.

그게 되새김질이고 그게 곱씹기다.

4장. - 감응의 퇴고

말을 쓰는 건 쉽다.

하지만 그 말을 다시 듣는 건 어렵다. 말은 늘 나보다 앞서고, 나는 그 말의 그림자를 따라간다.

퇴고는 내가 쓴 말의 청자가 되는 과정이다.

내가 뱉은 문장을 다시 듣고, 다시 느끼고, 다시 살아보는 일이다. 그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감응이다.

이 문장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가?

이 말은 지금의 나를 울릴 수 있는가?

감응은 정답이 없다. 그래서 퇴고는 늘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붙잡고, 내 안의 결로 다듬는 일, 그게 감응의 퇴고다.

잘 고친 문장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 그 울림은 기술에서 비롯되지만 그 기술은 기교가 아니다. 익숙한 손길, 쌓인 감각, 그 모든 축적된 감응이 결국 말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기술이고, 그 시작은 감응이다.

5장. - 리듬은 구조가 아니다

잘 쓴 글에는 리듬이 있다.

하지만 그 리듬은 문장을 나열해서는 만들 수 없다. 단어 사이의 쉼, 문장 사이의 호흡,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침묵까지. 모두 말의 결을 이룬다.

처음 쓴 문장은 대개 말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다. 박자가 빠르고 쉼 없이 몰아붙이거나, 너무 느려 독자를 놓친다. 심지어 자주 엇박이나 반음 차이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퇴고는 그 리듬을 내 말의 박자에 맞춰 다듬는 일이다. 그건 문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울림을 듣는 과정이다.

구조는 조립이 아니다. 흐름이다.

단단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할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퇴고는 리듬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두는 일이다.

6장. - 고치지 않는 것도 퇴고다

고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전제한다. 그 문장이 부족했거나 감정이 과했거나 의도가 어긋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문장을 고쳐야만 할까?

때로는 거칠고 투박한 말이 그 순간의 진심을 가장 잘 담고 있을 때가 있다.

말은 틀릴 수 있지만 그 말에 담긴 살결은 지워버릴 수 없다. 퇴고는 고치는 기술만이 아니라 고치지 않는 결심까지 품는 자리다.

그 결심은 책임이다.

말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 읽는 이의 비난이나 왜곡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그건 윤리보다 더 내밀한 태도다. 말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정확한 온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믿음. 그렇기에 고치지 않는 것도 퇴고다.

고치지 않을 수 있는 말, 그건 이미 감당이 끝난 말이다.

7장. - 문장이 아니라, 결심을 고른다

고쳐야 할 말이 있고, 고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

그 사이에서 망설일 때, 나는 기술이 아니라 결심으로 판단한다.

퇴고는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말, 감당해야만 하는 말, 그리고 감당하지 않겠다고 지우는 말. 그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때로는 감정에 치여 지운다. 때로는 그 감정조차 감싸 안고 남긴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리듬이 내게 알려주는 것.

나는 문장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사람이다.

퇴고는 문장이 아니라 말에 대한 내 결심을 확인하는 자리다.

에필로그 - 곱씹는다는 것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내 말을 더 오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다.

처음 쓴 문장은

늘 조금 낯설다.

때론 낯부끄럽고,

때론 너무 단호해서

스스로에게조차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읽는다.

다시 듣는다.

그리고 다시 그 말을 내 말로 살아내려 한다.

퇴고는 기술이 아니다.

정답도 아니다.

그저 다시 살아보는 일이다.

그 말에 담긴 온도,

그 말에 담긴 울림,

그 말에 담긴 나를

조금 더 진하게 받아들이는 일.

나는 그 말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말을 감당한 것이다.

곱씹는다는 건

그렇게

한 문장을 온전히 내 삶으로 데려오는 일이다.